



아스콘 떨어져 자갈밭된 도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북측도로(혁신로)가 떨어져나온 아스콘 재료를 인해 자갈밭으로 변하면서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수북하게 쌓인 아스콘 조각들은 혁신도시 내 도로 곳곳에서 발견됐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보도블럭 꼭 꺼지고
한국전력공사 사옥 앞 인도가 침하돼 있다.



횡단보도 돌출 '공포의 턱'
부실시공으로 돌출돼 있는 한국전력공사 앞 횡단보도.

명품 혁신도시 낮부끄러운 '누더기 도로'

곳곳 패이고 차선 사라지고 보도블록 침하 등 부실공사 논란
나주시 도로 하자 등 399건 보완 요청...시행사 100곳만 보수
시-시행사 시설 인수 책임공방 속 시민 불편·안전 위협

‘광주·전남의 미래성장 거점도시’라는 타이틀로 조성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곳곳의 도로가 준공 1년 만에 누더기로 변해 주민 불편과 함께 운전자들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다.

6차선 대로의 차선이 사라지는가 하면 도로에서 분리된 아스콘(아스팔트) 포장재료가 도로를 뒤덮어 자갈밭으로 변하는 등 도시 전체가 부실시공된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나주시와 공사 시행사는 하자보수를 서두르는 대신 혁신도시 내 시설물 인계·인수를 놓고 책임 공방만 이어가고 있다.

11일 오전 나주시 금천면과 산포면 일원에 자리한 빛가람혁신도시에서는 도시 조성 초기부터 내세웠던 ‘명품도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혁신도시 초입에 위치한 우미린 아파트 앞 대로에 설치된 ‘협프형’(인도와 차도의 높이가 같은) 횡단보

도는 장애인과 어린이, 노인의 통행권을 보장한다는 당초의 취지와 달리 사람들의 통행 자체가 불가능했다. 횡단보도 양끝 인도에 놓인 ‘블라드’(길말뚝)에 각목을 묶어 보행자들의 접근을 금지하고 있었고, 횡단보도와 붙은 인도는 공사가 채 끝나지 않아 자갈밭으로 남아 있었다. 협프형 횡단보도는 인도와 높이가 같아야 하지만 훨씬 높고 노면도 고르지 못했고, 경사도가 심해 차량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도로를 긁어 남긴 스크래치 자국들이 눈에 띄었다. 이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 등 혁신도시 내에 설치된 수십여 개의 협프형 횡단보도는 운전자들에게 ‘공포의 턱’으로 불리고 있다.

중심도로인 ‘빛가람로’를 비롯해 혁신도시 내 도로의 차선 상당 부분이 탈색되거나 도색이 벗겨져 있었다. 보행자들이 이용하는 횡단보도가 사라진 구간도 상당했다. 특히 밤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그나마 희미하

게 남아 있는 차선조차 보이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 이곳 주민들의 이야기다. 이 같은 이유는 공사기간 단축과 예산절감 등을 위해 빛을 반사하는 도료를 사용하는 ‘유작식’ 시공 대신 ‘상온형’ 시공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부실시공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북측도로’로 불리는 ‘혁신로’는 도로 선택을 잘못해 차선별 도로 색깔이 달라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었으며, 이 도로 끝의 70m 구간은 떨어져 나온 아스콘 조각들로 자갈밭으로 변해 있었다. 이 밖에도 도로 패임, 보도블록 침하, 도로 균열 등 수많은 문제가 혁신도시 도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나주시는 지난해 4~6월 사이 혁신도시 도로와 교량을 점검, 같은 해 6월 시행 3사에 보수 및 재시공 등을 요구했다. 도로에서는 LH 141건, 전남개발공사 92건, 광주도시공사 54건 등 287건이었으며, 교량은 3사 통틀어 112건에 달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재시공 등을 요구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교량과 도로를 통틀어 보수된 곳은 100여곳에 불과하고 이마

저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며 “최종 준공 전까지 시설물 유지 관리를 시행 3사에서 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는데 이제 와서는 우리에게 유지·보수 의무를 넘기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점검과정에서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설계 도면 등을 주지 않고 있어 정밀 점검을 하지 못했다”며 “설계 도면으로 재점검을 할 경우 더 많은 문제점들이 들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LH 등 시행사 관계자는 “이미 법적으로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 등을 나주시에 통지하면서 시설물에 대한 인계가 끝난 상황”이라며 “지난해 말 나주시와 시행사가 만나 올해부터는 나주시에서 시설물을 관리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완 계획을 제출하기로 합의까지 했는데 나주시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혁신도시 준공검사는 LH 사업구역의 경우 LH가 자체적으로, 광주시도시공사와 전남개발공사 사업구역은 전남도가 맡아 지난해 12월말까지 완료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나주=손영철기자 ycsn@

한빛원전 3·4호기에 부실 방호설비

규격 미달 배관 설치...소방설비·감리업체 등 4명 적발

원자력발전소에 규격 미달 설비를 설치한 소방설비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영광 한빛원전 3·4호기에 기존 설계 프로그램과 다른 배관 설비를 설치한 혐의(소방시설공사법 위반)로 소방설비업체 대표 황모(57)씨와 감리업체 대표 이모(43)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지난 2011년 한빛원전 3·4호기의 주 제어실과 전기실 등에 가스계 소화설비를 구축하면서 기존 시방서(示方書·공사의 표준안을 담은 규정)에 규정된 것보다 가스 방출 압력이 낮은 배관을 설치하는 등 원전

방호 설비를 부실 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리업체 대표 이씨는 감리를 진행하는 동안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설계·시공업체가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기존 관행 때문에 ‘을’에 해당하는 감리업체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이와 같은 범행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영광 한빛원전민간환경감시센터 측도 진상 파악과 위험성 여부 조사에 나섰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PC방서 게임동호회 동료회원 폭행 중태 빠뜨려

광주북부경찰청은 11일 PC방 흡연실에서 자신과 같은 게임동호회 회원을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중상해)로 김모(45)씨를 불검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9일 새벽 2시30분경 광주시 북구 오치동 한 PC방 흡연실에서 게임동호회 동료 회원 A(49)씨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뇌출혈 증세를 보여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새벽 3시에 흡연실에서 나온 뒤 갑자기

쓰러졌으며 PC방 직원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다.

김씨는 경찰에서 “A씨의 몸에서 폭행당한 흔적이 발견됐고, 김씨가 흡연실에 함께 들어갔다 김씨가 홀로 나오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며 “김씨가 혐의를 부인해 긴급체포했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 주택서 화재...4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광주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광주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20분경 광주시 북구 오치동 한 주택 2층에서 불이 나 20여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현관 앞 거실에서 이 집에 세들어 사는 A(여·46)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불은 주택 2층 거실과 방 일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1700만원의 재산피

해를 냈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검시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연기를 흡입한 흔적 등으로 미뤄 A씨가 연기에 질식사해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평소 불면증 등으로 늦은 시간까지 잠을 자지 못해 촛불을 켜두고 생활했다”며 “A씨가 동거남 B(45)씨에게는 ‘몸이 안 좋아 힘들고 괴롭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가끔 쓰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

탈퇴 조직원 ‘보복 폭행’...조폭 4명 검거

탈퇴의사를 밝히고 취업 전선에 뛰어난 조직원을 도심 한복판에서 보복 폭행한 조직폭력배가 무더기로 검거됐다.

광주서부경찰청은 후배 조직원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특수폭행 및 범죄단체 등의 구성·활동)로 조직폭력배 정모(29)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폭행

에 가담한 조직원 이모(22)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광주 중앙오비파 행동대원인 정씨 등은 지난달 17일 오전 6시에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콜럼버스시네마 앞 거리에서 조직 탈퇴 의사를 밝힌 김모(25)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야구방망이와 주먹으로 때려 전치 4

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10여분 간의 무차별 폭행으로 김씨는 코와 광대뼈가 부러지고 머리와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지만 조직폭력배들이 휘두른 폭력이 지나가던 시민들도 감히 말리려는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정씨 일당은 폭행을 견디지 못한 김씨가 달아나자 “탈퇴한 조직원은 끝까지 찾아 보복해야 한다”며 이씨 등에게 주변 모텔

과 병원을 뒤지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들은 최근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김씨가 생산직 일자리를 알아보며 조직에서 탈퇴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일당이 가담한 폭력조직 중앙오비파는 지난 1988년 결성돼 광주지역 유흥가를 기반으로 활동해 왔다. 조직원 55명이 경찰의 관리대상에 올라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은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NPL 관련업무를 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 • NPL중개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NPL(근저당권)투자는 ?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양도소득세나 이자소득세가 부담이 되시는 분
-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추천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 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업/현대스위스/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질권대출협약,JB캐피탈 NPL사업협약,담보부 NPL 수익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전문기업입니다.

경매 개시 이전, 이후 금융권 근저당권 채권, 개인 가압류채권 후 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채권 매입합니다.

NPL매입,중개,질권대출 담당
경매경락잔금대출 지원담당

☎ 062-383-4987
본부장 010-4557-3034
이 사 010-2170-3034

유한회사 제이앤와이도시개발

사업자등록번호 435-87-00319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2461